최양업 토마스 신부 탄생 200주년 순례 '그길을 따라 걷다' 체험 수기

그분의 성스러운 발자취를 생각하며

사창동 성당 이종덕 마르코

내자가 잡은 핸들 너머로 보이는 차창은 뿌옇게 흐려진 하늘 뿐이다. 해가 중천에 떠 있을 시간인데 해무는 걷힐 줄 모른다. 바다인지 하늘인지 분간을 할 수 없다. 유월중순 초하의 바닷길 짙은 해무는 내륙에 살던 나는 익숙하지 않은 풍경이다. 곧게 뻗어있는 방조제를 달리는 차창 밖은 거칠 것이 없다. 파란 하늘과 바다에 해무가 없었다면 얼마나 시원했을까 그저 상상으로 즐긴다. 고난의 성지를 찾는 내가 무슨 생각에 풍경을 즐기려 하다니 움찔 숙연함이 뇌리를 스쳐간다.

얼마를 갔을까 뿌옇게 가려진 시야에 새만금 33타워가 눈 안에 들어온다. 목적지에 다왔다고 네비가 알려준다. 여기가 최양업 부제님이 타고 오신 프랑스 군함이 좌초되었던 곳이라니 도저히 믿어지질 않는다. 그것도 그럴 것이 180여 년 전의 이곳과는 거대한 간척공사로 인하여 벽해상전이 되었으니 그 시절이 어떻게 생겼는가는 가늠할 수조차 없다.

코앞의 육지를 바라보며 순박한 백성들에게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과 구원을 위해 전교를 이루고자 오매불망 고국 땅을 그리던 최양업 부제님은 파선으로 인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돌아서야만 했던 처지에 고뇌의 긴 한숨을 지었을 것이다.

"그 길을 따라 걷다"

언뜻 생각하면 제법 낭만적이고 감상적이다. 꿈 많은 어느 소녀가 사색에 잠겨 정처 없이 걸어가는 그 길 추억을 만들어 가는 그 길 같기도 하다. 하지만 그 길은 고난과 역경의 길이며 생사를 가름하는 길이기도 하다.

차 한대가 겨우 비집고 들어가는 좁은 길 한참 가다보면 더는 갈 수 없는 막다른 곳이 도앙골 성지다. 성지가 다 그렇듯 산골짜기 깊숙이 숨어들어 있기에 이곳 역시 매한가지다 그 옛날 복숭아나무가 많아 부쳐진 이름이라 한다. 지금은 서너 농가만 보이는 농촌으로 밤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나는 밤나무 단지다.

한때는(1850년) 이곳에 신자들이 200여명이나 모여 살았으며 최양업 신부께서 사목하고 있을 때 이장에게 들켜 프랑스 서양 놈이 사기 치는 도독 놈이요 선동꾼이라며 너는 내일이면 붉은 오랏줄에 꽁꽁 묶여 도둑놈의 감옥으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고래고래 소리쳐 할 수 없이 공소 회장들의 권고를 받아들여 한밤중에 도망쳐 나왔던 곳이다.
(도앙골에서 보낸 최양업 신부 서한 중에서)

거석을 다듬어 십자가와 제대를 설치하였고 순래객을 맞이하기 위해 주위를 정리하는 중이어서 다소 어수선하기만 하다. 척박한 산골짜기 변변한 농토 하나 없는 곳에서 주님의 은총을 간구하며 어렵게 살아가는 모습을 연상하기에 주저함이 없는 곳이다.

길모퉁이 짙은 자주색 엉겅퀴에 눈길이 간다. 드넓은 산야에 오직 홀로 피어난 한송이 엉겅퀴 고독한 교우를 연상케 한다. 박해를 피해 깊은 산골짜기에 터를 잡고 교우촌을 이루고 사는 교우들은 늘 주위를 경계할 수뿐이 없다. 목숨 걸고 오직 주님만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가를 가시 돋친 한 떨기 엉겅퀴가 말해 주는 듯하다.

괴나리 둘러메고 갓끈 졸라맨 얼굴엔 인자한 듯 굳은 의지가 흐른다. 축성된 하느님 신비를 분배하기 위한 결의에 찬 그는 도포 자락 휘날리며 바쁜 걸음으로 교우촌을 찾아들 때마다 비참한 굶주림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물질적 도움을 줄 수 없고 하느님의 자비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한 무력감에 눈물 머금은 일이 한두 번이 아닐 것이다. 지긋지긋한 가난의 현실은 교우들 뿐만은 아니다. 온 나라 백성도 매한가지다. 미사를 집전하고 끼니를 나눌 적마다 굶주리는 신자들 생각에 마음 편 한 적이 없을 것이다. 하루에 한 끼 두 끼로 버티며 수백리 교우촌을 찾을 때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 발걸음 옮길 힘조차 없어 주저앉은 적도 한두 번이 아닐 것이다.

“우리는 한밤중에 매서운 추위를 피하기 위하여 유숙했던 주막에서 쫓겨나 매를 흠씬 두들겨 맞고 또 의복이 찢어져 반쯤 나체가 되었고 강추위로 몸이 꽁꽁 얼어붙었고 고통으로 몸과 마음이 기진맥진하였다.”

배티성지 십자가의 길 제10처 고난의 글이다. 어디 이것뿐이랴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을 것이다. 이처럼 처절한 고행으로 교우를 돌볼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구원을 믿고 그 믿음을 전교하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순교 정신이었을 것이다.

아침 일찍 종로성지를 거처 순례 종착지 당고개에 도착하였다.
새로 지정된 성지보다 오래된 성지는 그간 잘 정리 정돈이 되어 있기에 엄숙함보다는 경내 구경이 더 익숙한 것 같아 내심 죄송스러운 생각이 든다.

엄숙한 죽음의 현장에서 처참했던 그 시절 절박한 상황이 느껴지질 않는다. 내 자신을 꾸짖어 보기도 하지만 그런다고 처참한 죽음을 조금이라도 체감할 수 있었다면 내 양심이 가슴속 깊이 숨어들지 않았을 것이다. 주위 환경 때문인지 홀로코스트처럼 숙연함이 없기에 더욱 안타까울 따름이다.

처참한 순교자의 영혼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기도는 무엇일까? 자문해 보지만 내 나이 산수인 지금 무디고 굳어버린 감성으로는 그 시절 순교자의 실상을 그려내지 못하는 우둔함이 야속하다.

그나마 이름이 있는 순교자를 위하여는 이름이라도 불러 보지만 무명으로 순교한 이들에 대하여는 불러 볼 이름조차 없으니 난감하다. 수많은 무명의 순교자가 처절한 죽음으로 이룩한 믿음의 자유를 호사스럽게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백골난망 할 뿐이다.

묵주팔찌, 묵주반지를 끼고 자랑스럽게 천주교 신자임을 드러내 보이는 우리는 그들의 순교 덕으로 믿음의 자유를 만끽하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

최양업 토마스 사제처럼 죽을 힘을 다하여 구만리 고달픈 길을 두루 다니며 신자들을 돌보지 않았다면 오늘날 이렇게 많은 신자들이 성당을 찾아 들어 미사를 드릴 수 있었을까? 죽음의 순교자가 있었다면 최양업 토마스 사제는 어쩌면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감내하며 전교를 통하여 수많은 신자들을 배출하여 오늘날 한국 천주교회를 이룩하신 분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최양업 토마스 사제는 성인 반열에 들게 하시고 무명 순교자만을 위한 위령의 기도서를 제정하여 신자들로 하여금 널리 읽히게 하였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져 본다.